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33
----------	------

발의연월일 : 2025. 3. 4.

발 의 자 : 임미애 · 이병진 · 박지원
박해철 · 복기왕 · 최기상
이재관 · 허성무 · 김영환
이원택 · 김성환 · 문금주
박지혜 · 장종태 · 김 윤
송재봉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

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토지수용”을 “토지등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토지”를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의”를 “토지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u>토지수용</u>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u>토지</u> 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제30조(<u>토지등의 수용</u> 등) ① --- ----- ----- ----- <u>토지·건물</u>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권리(이하 “ <u>토지등</u> ”이라 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u>토지의</u>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 ----- ----- ----- ----- ----- <u>토지등의</u> ----- ----- ----- -----.